할렐루야

북한선교와 이주민선교를 묻다

말씀 말씀으로 확신으로(김승욱 담임목사)

특별기획 통일선교주간을 맞이하며

나그네와 함께하는 복된 삶

통권 631호

06

2022

Hallelujah 할렐루야교회

Hallelujah Community Church

2022 할렐루야교회 표어 같이 말씀으로, 날인 아웃라이

06 2022 할렐루야

그날을 위해

박종배 안수집사(신문팀장)

지방의 한 장례식에서 시작된 통일선교아카데미! 이전부터 수강하고 싶었으나 토요일 출장이 잦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늦출 수 없겠구나. 빨리 신청해서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한 후 북한선교팀에 가서 접수했습니다. 통일선교에 대한 마음은 청년부 때 허문영 장로님의 강의를 듣고 시작되었으며, 교직에 입문하면 북한에서 교육하는 기회를 얻어야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그 용기가 서서히 줄어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다시금 용기가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변수가 발생했고 첫 강의도 지방 장례식장에 가서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마당 관련된 간증이고, 다른 하나는 난민 수용에 대한 반응과 역할입니다. 초창기 북한선교를 할 때 물품을 계속 보내주는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빼돌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빼돌려진 물건으로 북한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되며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복음을 접하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는 큰 은혜의 체험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는 개인 소감을 발표할 때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며 '난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러시아의 위상 추락, 그로 인한 중국의 고립, 북한의 붕괴 등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러시아·중국·북한에서 난민이 발생할 때 통일 한국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강의하셨던 교수님께서 그 의견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위해 선생님께서 하실 역할을 잘 준비하고 있으셔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통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수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ACTS 다락방에서 '오늘은 다락방 내일은 아시아'라는 슬로건을 보며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불태웠던 젊은 날의 심장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주민 선교나 북한 통일 선교 모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발씩 전진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날을 위해!

할렐루야교회
창립 1980. 11. 16

<표지> 북한선교와 이주민선교를 묻다

Hallelujah News 할렐루야신문사
1987년 5월 10일 창간
발행일 631호 / 2022. 6. 1
우)13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전화 031-780-9573
e-mail news@hcc.or.kr

발행인 김승욱
담당목사 백명렬 담당장로 송철
팀장 박종배 부팀장 이준모
총무 마준호 회계 김정예 서기 노신영
편집간사 지현아 디자인간사 김효진
신문위원 김봉한 유광일 윤성구 윤성만
이욱 이은경 최이선
교정 김학주
6월호 담당 윤성구

기획의도 한국교회는 Covid-19를 겪으며, 통일민 형제자매와 이주민에게 좀더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1세대 통일민과 이주민선교사를 찾아 이분들의 생생한 선교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2022.6

CONTENTS

여는 글	그날을 위해	02
말씀	깊이 말씀으로(5) : 말씀으로 확신으로	04
특별기획	통일을 향한 기도	06
	통일선교주간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07
	인터뷰 - 통일선교주간을 맞이하며	08
	나그네와 함께 하는 복된 삶	10
	할렐루야만평	11
	나를 나 되게 해준 이주민선교	12
이주민선교	우리 모두 다 함께 / 이달의 추천도서	14
해외선교	필리핀 교도소 사역 소개	15
소개	6교구 안수집사회	16
	자랑스러운 시범6 사랑방	17
교육자선교회	이 시대 교사로서 부르심의 소명	18
특집	군대 간 아들에게 띄우는 편지	20
	훈련병에게 띄우는 편지	21
뉴젠	어린이주일 연합행사를 했어요	22
	뉴젠 교사의 밤	23
상담센터	심리검사란	24
뉴웨이브	어린이날, 엘림동산 패밀리축제에 다녀와서	25
마더와이즈	네 여자의 추억 만들기	26
독자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7
	루야캘리	
파랑새광장	할렐루야 소식	28
예배하는 우리집	예수,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30
새가족	할렐루야 새가족	31

□ 2022년 신문위원 모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는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교회신문팀은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연락처 박종배 팀장(010-5444-4067)

□ 할렐루야교회 존재 목적(Mission Statement)

할렐루야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드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We exist to glorify God by exalting Jesus Christ.)

□ 할렐루야교회 신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 할렐루야신문사에서는 성도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신문사 메일(news@hcc.or.kr)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를 통해 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www.hcc.or.kr **전화** 031) 780-9500

깊이 말씀으로(5)

말씀으로 확신으로

- 수 1:1-9

김승욱 담임목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고 흔들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세상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함으로 죄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 주셨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요소들을 늘 접하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특히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책, 곧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 우리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9절에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말씀으로 살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은 지도자 모세가 죽은 상황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그들을 바로의 쇠사슬에서 인도해 낸 해방자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변론하고 중보하는 대변인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신실한 목자처럼 그들을 인도한 인도자였고,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와 아말렉과 같은 산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자였으며,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흐르도록,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 그들의 공급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세상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의존하고 소망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움직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2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그들이 의지할 모세가 없으니, 지금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와도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5절)* 그리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6절, 7절, 9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모세'가 없어져 버린 때가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의존했던 희망으로 삼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져 버린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상황 가운데 일어서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처럼 책에 쓰여 있지 않았고 양의 가죽에 써서 두루마리로 보관하고 있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제사장이 읽고 가르쳐 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입으로 읊조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들으며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읽고 듣고 가까이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 책망과 권면을 주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며, 또한 그것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시 119:105),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행 20:32),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롬 15:4),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십니다(렘 15:6). 또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시 107:20),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딤후 3:16-1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말씀의 능력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드는 세상 가운데에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일을 향한 기도

이철규 목사
(북한선교 담당)

매년 6월이 되면 우리는 특별히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과제이며, 또한 복음증거를 위한 통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을 넘어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까지 성령의 새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1.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온 국민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시고, 주의 법과 규범이 각 영역에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대한민국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소서.

2. 북한 주민들과 인권 해방을 위하여!
2천만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복음의 불씨가 심어지게 하소서. 북한의 480만 가정에 성경이 보급되고, 4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생명 존중을 받으며, 인권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소서.

3.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교회 재건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이들의 신앙이 북한의 13개 도시와 4,781개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재건의 초석이 되게 하소서.

4. 탈북자·통일민을 위하여!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도와주소서. 인신매매나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십자가 복음 만나게 하소서.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통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사명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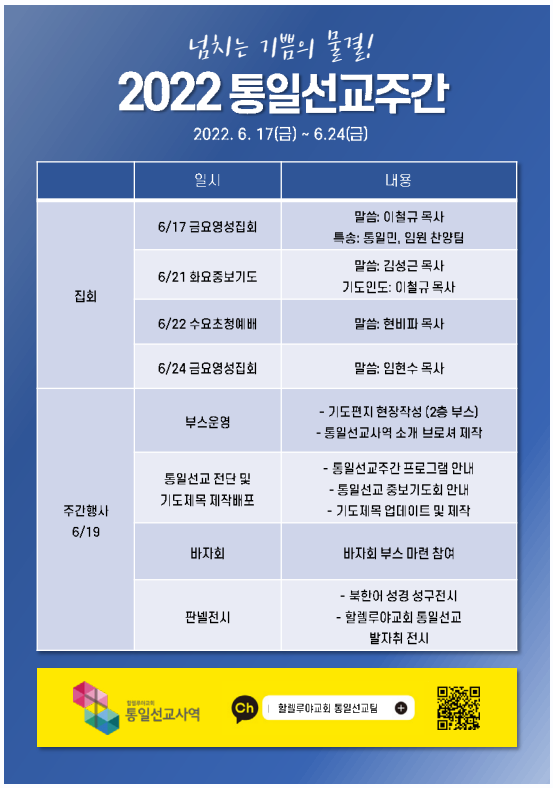
5. 남북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통일시대를 살아갈 남북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거룩한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게 하소서.

6. 평화의 나라 통일 한반도를 위하여!
북한의 순교적 영성과 한국의 선교적 영성,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글로벌 영성으로 원코리아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열방을 치유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통일선교주간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정경숙 집사
(통일비전팀 부팀장)

다가오는 6월 17일부터 24일 8일간은 할렐루야교회 통일선교주간입니다. 담임목사님 중점사역 중 하나인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과 머지않아 다가올 남과 북의 복음통일을 바라며 전 교인이 통일선교 사역에 대한 이해와 북한선교 중보기도의 참여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한 북한과 통일민에 대한 이해를 배가시켜 통일선교에 새바람을 불게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통일선교주간 금요부흥회(17일) 시간에는 북한선교팀을 맡고 계신 이철규 목사님께서 '큰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고 통일민들과 섬기는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특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일 주일에는 복지공동체 주관으로 조이가든 이웃 사랑 나눔 축제를 풍성히 준비하고 통일선교팀 역시 바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통일민 형제들은 푸드 트럭과 여러 물품을 준비하여 나눔 축제를 행복하게 즐길 예정입니다.

2층 로비에서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할렐루야교회 통일선교의 역사를 할렐루야 신문을 통해 조명해 보는 **'할렐루야교회 통일선교 발자취 사진전'**과 북한 지하 교인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북한어 성경 중 시편 말씀을 낭독해 볼 수 있도록 **'북한어 시편전시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 루야스케치 앞 통일선교 부스에는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와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더욱 고립되고 통제되고 있는 북한을 향해 기도제목을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통일선교 기도 편지 작성'**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 제자화 하여 북한의 복음중심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비전을 가지신 노원 한나라은혜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화요중보기도회(21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날인 금요부흥회(24일)에는 북한에서 3년간 억류됐다 지난 2017년 극적으로 석방되신 임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 통일선교 중보기도회는 주일 오후 1시 30분 202호(일본어 예배실)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통일선교주간을 맞이하며

인터뷰이 홍기우 안수집사 · 곽미영 권사 부부(5교구)
인터뷰어 통일비전팀

홍기우 집사님, 곽미영 권사님은 북한선교팀을 위해서 오랫동안 섬겨주셨는데 어떠한 계기로 북한선교팀을 섬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홍기우 제가 직장을 은퇴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담임목사님께서 청빙되어 오셨는데 그때부터 교회 사역이 리셋 되면서 선교공동체가 만들어졌죠. 북한선교 사역은 국내팀에 소속되어 시작되었는데 제가 사역장으로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맡고 보니까, 이전에 통일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과 단절되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됐어요.
북한선교를 섬긴 사람들 중에 현재 여섯 명이 목회자로 발전을 했고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뜨겁게 섬겼던 것이 많은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곽 권사님은 저희 북한선교팀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쭉 빌드업부터 세팅, 많은 과정을 또 함께 또 도우시면서 사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함께 하시게 된 계기와 은혜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곽미영 네, 저는 2007년도 아제르바이잔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 스쿨에 등록하고 훈련을 받는 중에 북한을 오고 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어느 선교사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선교사님 강의 중에 "여러분들은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미전도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족속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과연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족속은 어디입니까?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반공의식에 젖어있던 저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듣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은 후에 저한테 들려온 것은 북한을 오고 가면서 북한의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콩국수로 섬기는 팀앤팀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됐고 거기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아주 작게 시작된 북한 선교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처음에 북한 선교 시작할 때 탈북민(통일민)을 멘토, 멘티로 엮어서 이렇게 일대일로 섬기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희 부부에게 맡겨진 탈북민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 분은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후두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후두암 수술이 잘못돼서 상당히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폐암을 앓게 됐어요. 또 아내는 모야모야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눈이 실명되어 가는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부부였어요. 부부를 섬기는데 저희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섬기는데 그분들이 통증이 오고 아프면 전화를 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럼 그들에게 기도하면 이 통증이 낫겠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섬기던 중에 폐암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분이 실토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두 분이 우리한테 하도 극진하게 해서 저들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빼앗아가려고 하나 뭘 얻어가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6년 지나면서 본인들이 느끼는 거는 정말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구나. 우리한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저렇게 일관적으로 섬기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누나라고 불러도 되겠느냐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통일민을 잘 알아가는 계기가 됐던 거는 이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 젊은 자매가 남편을 갑자기 잃게 됐어요. 그때 저를 끌어안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통곡했을 때 사실 제 자식 같아 저한테 그 자매의 슬픔이 상당히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통일민들은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마다 교회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면서 교회의 사랑을 알아 가게 되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각종 훈련을 받게 되면서 직분자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 사랑방장으로 세워질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 특히나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애정도 많고 기도 많이 해 주시지만 이 통일선교주간을 맞이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기도와 또 기도회와 사역에 동참해 주십사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홍기우 통일선교주간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과연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가? 이런 면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통일이 아니고 복음에 의한 통일, 복음 통일을 원하는 겁니다. 독일 통일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된 것 같이 우리 한반도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합치는 그런 통일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참 저희 생전에 통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북한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은 섬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교회 밖에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그들이 교회의 사랑에 감동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통일민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중보기도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거든요.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그네와 함께 하는 복된 삶

이강애(재한몽골학교 교장)

할렐루야 교우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0여 년 이주민선교를 해오는 동안 교우님들의 기도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강화도에서 초임교사로 근무할 때 남편((사)나섬공동체 대표 유해근 목사)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있다며 군목으로 입대를 앞둔 지금의 남편을 소개하셨지요. 이후 저희는 87년 결혼을 하였고 군목 시절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군목 제대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던 남편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구로공단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였습니다. 당시 이주노동자는 마치 짐승이나 노예처럼 취급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그들의 편에서 고용주와 싸우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던 남편은 고용주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홀대를 당하였습니다. 어느 해엔가는 명절날 홀로 기숙사에 남겨져 시신으로 발견된 노동자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시신 옆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보면서 고민과 방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지금은 양안의 시력을 모두 잃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구로공단에 들어간 때가 1992년이었으니 올해로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실명의 고통을 온몸으로 안고 살아가는 남편의 삶에 동반자로 산다는 것은 힘들지만 역설적이게도 감사였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창12:3)처럼 나그네 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지나고 보니 저희 가정과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하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돕는 일로 시작된 저희의 사역은 현재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 다문화가정과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을 섬기는 일로 확대되었습니다. 1999년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시작된 공부방은 현재 300명의 외국인학교로 발전하였고, 현재 한국인 예배를 비롯한 몽골, 인도, 이란,

재한몽골학교 나섬축제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의 외국인 예배와 모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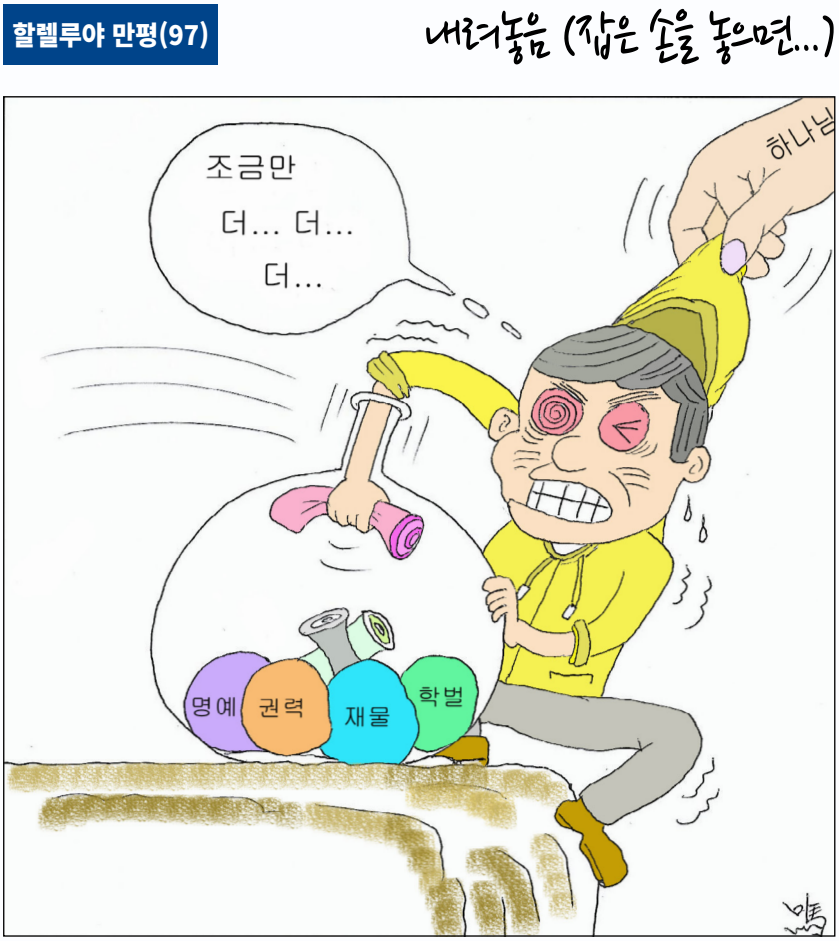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교회에 찾아온 이주민들을 돕고 친구가 되어주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님의 은혜의 단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신을 결단한 이들은 신학수업의 과정과 훈련을 거쳐 목회자로 세움을 받아 자신의 민족에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역(逆)파송선교'**라 부릅니다. 현재 터키와 인도, 베트남과 몽골, 중앙아시아 등지에 역파송된 선교사들이 주어진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전해지는 소식은 늘 놀랍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때에 역파송 선교사들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주민선교의 열매이고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남편과 함께 이주민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지만 결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깨달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은 약자들에게 머물러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남편은 항상 고백합니다. 다시 태어

나섬공동체 이주민 체육대회

나도 나그네를 섬기는 나섬의 자리에 있겠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 더 이생의 삶을 허락하신다면 그때도 저는 나그네와 함께 살 것입니다. 나그네와 함께 누리는 축복된 삶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복된 삶의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평(97)



글•그림 마준호 집사(신문위원)

나를 나 되게 해준 이주민선교

임진숙 선교사
(위디국제선교회)

이주민선교를 시작하다

2022년은 우리 가정이 세워진 지 만 30년이 되는 해이며 이주민선교 만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남편 문창선 목사와는 1992년, 하나님의 중매로 만났다. 결혼하자마자 문창선 목사는 신학을 하기 전 했던 비즈니스 경험을 계기삼아 종암동에서 동기 목사와 Grace Full Gospel Church를 세워 필리핀 이주근로자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동역했던 동기 목사와 그동안 세운 리더들에게 이양하고 남편의 고향이자 우리 가정이 있는 안양에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했다. 마침 우리 가정이 이사한 안양7동은 유난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공장단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1997년 7월 21일에 산소망교회를 개척하고 위디국제선교회를 세웠다.

여성 이주자 중에는 여성질환을 앓으면서도 보험이 없어 돈 생각하고 병원을 미루다가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지금은 다들 돌아가고 소식도 모르고 얼굴도 잊혔지만 뒤돌아보면 그들이 내게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다. 그들은 내가 살아갈 이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선교의 열매에 대하여

2016년에 남편의 권유로 횃불 트리니티 신대원에 입학하고 공부를 마친 후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학교를 마치고 나는 목회사역과 선교사역 거기에 작은 도서관 사역을 겸하며 지역사회의 아이들과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어 나름 행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한 '꿈의 학교'에 공모하여 '나는야 글로컬 시대의 리더'라는 학교명으로 20명의 학생들

2019꿈의학교-안산세계다문화체험관

과 함께 14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언어의 어눌함이나 피부의 다름으로 인해 받는 왕따나 불이익이 없도록,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형성된 지구촌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울림이 되는 세계시민의식을 심어주는 시간으로 30년 가까이 해 왔던 이주민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꿈의 학교를 열었을 때 안양시 교육청이나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산부 방문 출산용품 증정과 기도 축복

한국 교회에 권면하는 이주민선교의 구체적 방향

이주민선교 30년을 돌아보며 한국 교회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는 학교다. 국내 출생 아동은 급격히 줄고 있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시·도 교육청 조사자료[1]를 근거로 보면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인 초·중·고교의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학생 수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2] 공교육 안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교육의 영역이다. 이 부분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대형교회들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대안학교를 운영한다면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그리고 다음으로 **'학교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애국선교로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위디는 2007년도부터 이주민선교훈련학교인 MMTS(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를 진행하고 있다. 훈련생들을 통하여 듣는 소리는 우리나라 구석구석마다 이주민이 없는 곳이 없다. 베트남 며느리, 태국 며느리 등 심지어 통영 지역은 베트남 여성들이 없으면 굴 채취를 할 수 없다. 농촌사회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이제는 계절근로자로 이주근로자를 대환영한다. 2021년 7월에 디아스포라 신문 취재차 당진 합덕을 방문하였을 때 아예 이주근로자들을 위한 원룸 빌라 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1990년대의 공장 안에 냉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숙소에 비하면 모든 것이 갖춰진 요즘 환경은 비교도 안 된다. 그럼에도 이주근로자 모시기가 힘들 정도라고 업주들은 끌탕을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문화권이 아닌 다양한 문화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가운데 지역교회들이 한국인 시어머니와 베트남 며느리 사이에서 중재 역할도 해줘야 하고, 그들의 이웃도 되어주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라는 선교명령이 오늘날 지역교회, 교회마다 이를 수행하는 통로들이 되어 아예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타문화 영혼들을 천국복음으로 품음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됨이 이 시대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본다.

---

1) 참고 자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post/6740679?itemCode=03&menuId=m_02_03_03)

2) 참고 자료 출처: 중앙 다문화교육센터(https://www.edu4mc.or.kr/guide/stat.html)

우리 모두 다 함께

최이선 집사
(신문위원)

지난 5월 28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우리 모두 다 함께” 라는 주제로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초청문화축제>가 청석씨어터에서 열렸다.

올프렌즈문화 주관, 할렐루야교회 등 3개 교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예수님을 뜨겁게 소개하는 큰복음 집회와 더불어 그동안 외출이 쉽지 않은 이주근로자들에게 넉넉한 쉼의 자리가 되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땅을 찾아온 친구들 가슴에 타올라 역파송되는 한 선교사로 세워지길 엎드려 간구한다.

손들고 함께 찬양하는 이주민들

이주민과 함께 기념 사진 (1열 중앙 송철 장로)

이달의 추천도서

힘들 때 소망을 주는 5분 묵상

엘린 산나, 생명의 말씀사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의 양식, 매일의 묵상, QT 교재 등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꾸준하게 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힘든 문제와 억눌리는 일로 말씀이 삶에서 녹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치료제를 복용하듯이 짧은 구절을 하루 한 장씩 먹도록 처방된 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이 책은 그 대화가 중단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루하루의 양식을 먹도록 돕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을 열게 하고 입술로 짧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합니다. 92장의 주제로 된 말씀에서 한 번만이라도 힘과 용기 그리고 응답이 있다면 좋은 책이 주는 기쁨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이병수 목사(목회서기)

필리핀 교도소 사역 소개

이종국 선교사
(필리핀)

선교지 필리핀
가족사항 강윤정(아내), 이인(아들 15), 이예인(딸 12)
주요 사역 교도소 교회 사역, 예배 찬양팀 사역, 지역교회 목회 지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라는 힘든 싸움 속에서도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섬기고 계신 할렐루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12년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는 이종국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성도님들께 귀한 지면을 통하여 저의 몇몇 사역을 소개하려 합니다.

1. 교도소 교회 사역

- 4만 명 가까이 수용중인 필리핀 최대 중범죄자 교도소(Muntinlupa Maximum Security Compound)내 교회(Grace & Truth Church)와 신학교 사역입니다.
- 2014년부터 정식 교도소 내 종교지도자(Religious Volunteer Official) 자격으로 9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교도소 내 신학교를 통해 훈련되고 세워진 6명의 수감 중인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와 성경공부 기도회 등으로 150여 명의 교회 멤버들과 5,000여 명의 주위 재소자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2. 예배 찬양팀 사역(NOTTOUS WORSHIP MINISTRIES)

- *"모든 영광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시편115편)라는 마음으로 6명의 CCM 밴드와 함께 2017년부터 시작한 찬양예배 사역입니다.
- 진정한 예배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지역 커뮤니티를 직접 찾아가서 많은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된 사역입니다.

교도소 교회 사역

예배찬양팀 전도집회

3. 지역교회 목회지원

- 2013년부터 바콜(Bacoor)이라는 지역의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라는 교회에서 현지인 목사님(제스 다피탄)을 도우며 선교목사(Missionary Pastor)로 섬기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주일 설교와 목회자 세미나 및 구제사역 등을 통해 지역교회들과 주위의 목회자들을 목회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부족한 선교사이지만 매일 매일의 사역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6교구 안수집사회

2022 안수집사회 제공

왼쪽부터 이원철, 김진곤, 이주윤, 양은열, 박찬호, 노명식, 윤정성, 여은구

① 안수집사로 임직받으신 때는? ② 현재 또는 과거 봉사활동은? ③ 펼쳐보고 싶은 활동은? ④ 앞으로 임직받게 될 후배 안수집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⑤ 영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노익현 ① 2012년 ② 고등부, 안수집사회 ③ SNS 선교 ④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기 위한 준비 잘 하시길 ⑤ 항상 주님을 인식하도록 노력, 자전거 타기

주영걸 ① 2014년 ② 복지공동체 친교팀장, 사복복지팀장 ③ 노인복지 관련 봉사활동 참여 계획 ④ 언제 어디서나 주만 바라보며 교회사역 적극 참여 권면 ⑤ 취침 전 매일 에베소서 2장 암송(묵상), 영적 유지와 등산

여은구 ① 2016년 ② 신문팀장, 북한선교팀장, 온라인팀장, 초등2부 부장 ③ 통일선교사역, 뉴젠사역 ④ 주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생활 하시길 ⑤ 새벽기도회 참석, 주 3회 이상 10000보 걷기와 등산

박찬호 ① 2018년 ② 찬양팀 팀장, 경배와 찬양팀 팀장, 확신반 부팀장, 교구 총무 ③ 선교 및 전도 ④ 공동체사역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기 ⑤ 성경읽기와 기도, 골프와 걷기

윤정성 ① 2018년 ② 교구 총무. 복지공동체 지역섬김팀 팀장, 아깨모 총무 ③ 예배위원회 ④ 금요영성집회 기도하는 자리 사모하며 예배에 모범이 되시길 ⑤ 말씀 묵상, 편안한 마음으로 공원산책

양은열 ① 2018년 ② 영아부 부장, 중국어예배부 부장, 성가대 ③ 한국에 유학 온 중국대학생 섬김 사역 ④ 에너지를 분산해서 섬기시길 ⑤ 매일 아침 QT 및 매주 토요일 성경공부 그리고 헬스와 매일 7,700보 걷기

김진곤 ① 2018년 ② 오늘의 양식팀 팀장, 교구 총무, 중등부 부장 ③ 확신반 ④ 은혜롭고 즐거운 신앙생활 ⑤ 바다수영

노명식 ① 2020년 ② 사랑방장, 복지공동체 친교팀, 뉴젠공동체 총괄회계, 교구 총무, 인사팀, 찬양대, 뉴시즌 총괄서기 ③ 코로나 이후 식당 또는 주차 봉사 ④ 묵묵히 섬김을 다하고 감사하라 ⑤ 매일의 묵상과 걷기 운동

이원철 ① 2020년 ② 경배와 찬양팀, 사랑방장 ③ 찬양콘서트 또는 찬양콘테스트 ④ 하나됨을 위해 교회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⑤ 전도폭발훈련, 수영 & 스트레칭

이주윤 ① 2020년 ② 기획팀장, 사랑부교사, 사랑방장, 중등부 교사, 청년부 부감, 인사팀 ③ 신나게 놀기 ④ 지루하게 사는 것은 주님에 대한 죄다! 죄짓지 맙시다

＊ 누락된 분과 내용은 마지막 연재 때 정리해서 한 번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범6 사랑방

김형남 집사(6교구 시범6 사랑방장)

2008년 말 처음 할렐루야교회에 출석 후 아는 사람도 없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던 나에게 사랑방 모임은 신선하기도 했고 또 부담으로 다가왔었다. 두 아이가 어려서 혼자 사랑방 모임에 참석했으나 그나마도 몇 번 나가지 않았다. 집사람은 개강과 종강 모임 정도만 참석하였는데, 당시 한동업 집사님(현재 장로님) 내외분의 계속적인 권유와 사랑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후 헌신적이고 좋으신 여러 사랑방장님들과 방원들을 거치며 참여하는 가정들이 꾸준히 늘어 두 번의 분할을 통해 현재의 시범6 사랑방으로 탄생되었다. 시범6 사랑방은 부부 사랑방으로 현재 여섯 가정이 함께 하고 있으며, 재미있게도 여섯 가정 모두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사랑방 분할 후 노명식 집사님이 사랑방장을 맡아서 이끌어 주셨고, 이후 김성훈 집사님이 방장을 맡으셨다. 2020년 두 가정이 새롭게 오게 되어 모두 6가정이 되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나에게 사랑방장의 역할이 주어졌다. 이전에도 사랑방장 권유가 있었지만 해외 출장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하였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이상 출장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기꺼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해 함께 모이는 것이 녹록하지 않았다. 대면 모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올해 3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첫 모임을 시작하였다. 모두들 좋아하는 별다방 커피와 도넛, 스낵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여 격주로 주일 오후에 사랑방 모임을 하였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 사랑방원들의 가정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방원 전체가

5월 22일 오후 시범단지 놀이터, 처음으로 모두 모여 사진을 찍은 날
앞뒤로 부부, 왼쪽부터 최문기·곽태용 부부, 박혜경·노명식 부부,
송지영·김성훈 부부, 구보경·김형남 부부, 차민경·오승택 부부,
최지연·최두선 부부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 모임을 이어나갔다. 그런 중에도 계속 사랑방 식구들 모두가 참석하길 간절히 기도했다.

드디어 5월 22일 주일 사랑방 모임에서 6가정 12명의 사랑방원 모두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랑방원이 함께 대면 모임을 갖는 그날이 드디어 오게 된 것이다. 모두들 반가운 마음으로 동네 놀이터에 모여 음료와 다과를 함께 하고 교제를 나눈 후,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어 즐겁고 기꺼이 대면 모임에 같이 하는 사랑방원들이 자랑스럽고, 사랑방장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랑방원들로 인해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랑방 사역을 하고 있다. 언젠가 사랑방장 역할을 다른 방원에게 넘겨줄 때 내가 느꼈던 행복감을 온전히 누리게 하고 싶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10:25)

이 시대, 교사로서 부르심의 소명

안경환 권사
(전 교육자선교회 회장)

'전국SFC대학생대회' 후배들을 위해 중등교사로 살았던 경험과 권면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긴 시간을 기독교사로 살았던 경험과 권면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주일학교 교사도 예외는 아니기에 뉴젠의 교사로 부르신 소명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첫째, 부르심에 대해 늘 묻고 주님과 대면하는 삶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시편 90:9-17, 에베소서 5:16)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교육계에서 중등교사로 살고자 한다면,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 깊은 묵상이 먼저 필요하다. 대부분의 신임 교사들은 발령을 받으면 교사로서 자부심과 성취감에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갖고 학교에 부임한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자신이 성장한 세대와는 다른 악동(?)들과의 좌충우돌과 과다한 학교 업무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점차 사기가 저하된다.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고 삶의 패턴이 복잡해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니다. 성찰이 없으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당위'와 '의무'에 떠밀려 살아간다.

중등교사로 부르심에 대한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정립이 반드시 우선 되어야 한다. 하루 하루 거의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학교생활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오늘날 이 시대에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 고민하고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삶의 여정을 가야 한다. 자신만의 광야와 고독에서 주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고, 광야에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12절)*라고 기도했고, 사도바울은 이렇게 썼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에베소서 5:15-16).*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취하도록 시간을 주신다. 바울과 모세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단지 시간을 잘 지키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빡빡한 일정을 지켜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우리의 귀한 시간을 더 내주어야 할 때도

있다. 시간 관리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의 시간도 영원한 것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는 건강한 정서의 소유자여야 한다

건강한 정서가 바탕이 되지 않는 기독교 영성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16p) 특히 중등교사는 사춘기의 청소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낸다.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친구들과의 관계, 가정 문제 등으로 상처 입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디까지인가?

학교 현장에서 가정 문제, 친구들 문제, 학업 문제 등으로 상처 입고 고민하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는,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알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하고 정서가 건강해야 한다. 상처와 아픔, 결함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좋은 은사나 능력을 가진 성경 속의 위인들도 결함이나 약점을 가진 땅 위의 존재였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자기 내면의 비참함을 마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롬 7: 21-24) 이와 같이 자신의 참모습을 대면하고 상처와 약점, 실패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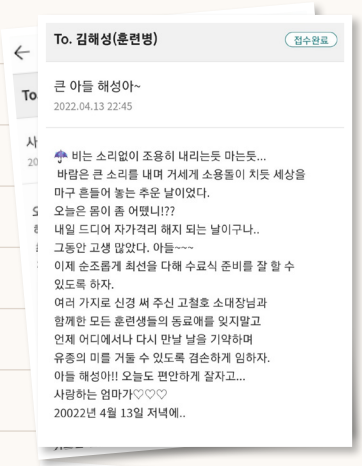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신자들보다 더 사랑이 넘치고 균형 잡혀 있고, 예의 바른 이들이 수없이 많다. 이와 동시에 금욕을 서약하고 관상적 영성에 깊이 헌신되어 있으면서도 감정적으로 미숙하고 사회 부적응적인 사람들도 있다. (중략)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이 하나로 엮어진다면 사람들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다.'(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6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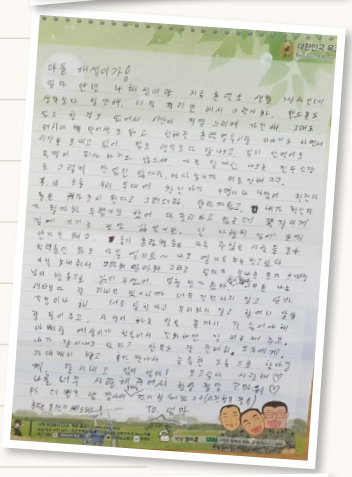
정서와 영성이 통합되어야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교사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누구나 성장 과정이나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약점이나 실패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씀 즉 하나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머리의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닌 그분과의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성장해 가야 교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

셋째, 나에게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사사기 3:31) 하나님은 각기 다른 우리의 형상과 인생을 허락하셨다. 받은 달란트, 성장 과정, 성품, 삶의 여정 등 모두가 다르다. 이러한 달란트와 경험 등을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신다. 사사기의 혼란한 시기에 농부였던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육백명이나 죽인 사건은 흔한 나무 막대기로 많은 적을 무찔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말해 주고 있다. 오늘날같이 혼란한 시기에 중등교사로서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처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는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이기도 하고, 나 자신의 삶을 통해 허락하신 연약함이나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게 보이는 미천함, 나에게만 허락하신 고난이나 고통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이나 고난을 통한 연단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부름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가 나에게는, 내 삶에서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답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큰 아들 해성아!!





논산 훈련소에서의 생활은 어떠니~??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꽃피고 새 우는 따스한 봄날이구나.

너의 피 끓는 젊은 청춘을 나라에 기여함이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엄마가 엄마가 된 것이 처음이어서 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

그러나 네가 있어서 참 많이 든든하고 힘내서 감당할 수 있었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커 주어서 정말 정말 고맙다.

남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군생활이라지만

너에게는 모든 환경들이 처음이고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겠지.

먼 나라 이웃나라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에 홀로 가서 잘 적응한 것처럼

대한민국 육군생활에도 원만하게 잘 적응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너의 뒤에는 늘 하나님이 머리 위에 계시고, 주야로 지켜주시고.

아빠 엄마 동생 가족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으니

어디에 가서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겸손하게 전진하여 나아가길 바란다.

훈련받는 5주 동안 소대장 고철호 원사님과

그리고 함께 훈련받는 훈련생들과

모든 훈련 생활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오후

많이 많이 사랑해

엄마 김정예

소대장이 보내는 편지

사람들에게 “왜 사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소대장은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자발적인 불행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

인생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야.

그 안에 행복이나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불행과 슬픔, 고통도 있지.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인생이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지 비로소 내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행복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좇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행복에도 의미가 있고 슬픔에도 의미가 있듯이.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미를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나?’라는 생각보다 ‘나 지금 의미 있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봐.

질문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지듯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은 달라지니까.

이제 카투사로 한발을 내딛는 너의 마음이 설레기도 때로는 두렵기도 하겠구나.

세상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타고난 자신감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던 똑같은 사람들이었어.

자신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야. 단지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감정이지.

그렇기 때문에 소대장은 네가 두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두려움은 어둠속에서 눈의 적응과 같아!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조금씩 형태와 윤곽이 보여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천천히 한 보씩 내딛다보면 결국 두려움이란 감정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자신감으로 채워질 거야.

늘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로 두려움을 잘 이겨내고 자신감으로 가득한 네가 되길 바란다.

5주간 수고했고 남은 군 복무기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 더욱더 성장하길 기도한다.

소대장 고철호

어린이주일 연합행사를 했어요

김사무엘 목사
(뉴젠 디렉터)

"조이가든에 조이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즈음에 뉴젠 공동체를 섬기는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후 조이가든이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의 웃음소리와 성도들의 교제 소리로 조이가든이 다시 조이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이주일 행사를 한 달 앞두고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소식이 발표되면서 뉴젠 공동체는 부서별 연합으로 어린이주일 연합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시금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없었지만 어린이주일을 시작으로 다시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의 나눔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5월 1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미취학 연합행사는 조이가든에서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세 부서가 연합해서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인형극 공연을 함께 보며 따스한 봄날, 조이가든을 맘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초등부 연합은 초등1부와 초등2부가 교회 아래 성지공원에서 다양한 코너 게임을 통해 신나고 즐거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이 다채롭게 준비된 코너를 돌며 즐거워하는 초등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영어예배부도 달란트 시장을 하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 중등부도 체육관에서 '중딩이도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오랜만에 모두가 즐겁게 누리는 활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취학 연합행사(조이가든)

초등부 연합행사(성지공원)

중등부 활동시간(체육관)

할렐루야교회가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할렐루야교회 뉴젠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뉴젠 교사의 밤

이중구 목사
(중등부 담당)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사역을 꼽아보라 한다면, '교사'라는 직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영유아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지만 어리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을 테고, 취학부 아이들은 말이 좀 통하는 것 같지만 통제가 안 될 때 참 어렵고, 청소년부 같은 경우엔 아무리 소리를 쳐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너무 외롭고 고독한 자리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교사의 필요성은 알지만, 현장의 어려움과 부담 때문에 내가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기에 지난 2년 반이라는 시간은 교사들에게 더욱 춥고 고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뉴젠에서는 그런 교사들을 생각하며 '위로'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 '그 자리에서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시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밤하늘의 별빛보다 교사들이 더 빛난다"라는 생각으로 총 2가지의 위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말씀을 통한 위로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시는 화종부 목사님을 모시고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는지, 다음 세대를 어떤 마음으로 양육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 모두가 풍성히 받아 누렸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생긴 불평과 원망에 대해 생각해보며, 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보는 시간이었지요. 결국 교사란, 이런 은혜를 끝없이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를 삶으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명자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과 교사들이 함께

2. 교제를 통한 위로

예배 후 교사들과 조이가든에서 만났습니다. 푸드트럭에서 제공되는 어묵과 떡볶이를 나눠먹으며 부서별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지요. 정말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금방 동이 나 버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조이가든이 정말 JOY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바라며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경품권 추첨시간도 있었는데,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제 이름이 불리지 않아 좀 서운했지만, 기뻐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차 할렐루야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갈 뉴젠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이들이 흘리는 눈물과 애쓰는 헌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교사라는 직분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적극 권면하며, 귀한 우리 아이들의 영적 부모님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무도 모르게 흘린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닦아 주실 것이며, 잘했다 애썼다 해주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사로 살아갈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별빛보다 빛나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심리검사(psychological testing)란

김미경
(할렐루야 상담센터 전문상담사)

심리검사란 삶의 다양한 자극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 즉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이 반영된 것으로, 신체의 여러 구조와 상태들이 반영되는 X-ray, 더 자세한 CT나 MRI 사진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적 특성들을 검사 결과로부터 잘 읽어내려면 체계적인 이론과 전문화된 수련 과정, 임상 경험을 겸비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상담자가 필요하다. 이 모든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 본 센터가 성도님들의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성찰에 유용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간략하나마 소개한다.

먼저, 상담의 목표가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심리적인 안녕감과 함께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담 장면에서 수행하는 심리검사의 목적은 그 무엇보다 내담자가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자기이해를 통해 전체생활과 관련해서 현재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과 자원을 발견하고 내담자 스스로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을 가진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검사만으로 만족하기에는 한계가 분명 있다. 왜냐면 개인의 이력은 아주 개별적이며 행동은 대단히 복잡하고 독특한 특이점을 가지는데, 이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단일한 검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여러 측면인, 행동(적응적, 부적응적, 의식적, 무의식적, 주관적, 객관적, 투사적)과 이 행동의 원인적 과정인 인지, 정서, 동기, 성격특성, 관계적 특성 등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서는 **'종합심리검사'**를 사용해야 한다.

종합심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세 부분을 각각 대표하는 심리검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기보고형 성격검사는 많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담자 스스로가 이 질문들이 자신에게 해당 되는지 여부를 대답하게 되어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검사로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는 타당도, 증상척도, 성격척도, 내용척도, 및 보충척도 등을 통해 내담자의 일반적인 적응수준, 증상행동과 방어양식, 문제행동의 원인과 심리적 역동, 진단분류, 즉 정신적 장애의 특성과 정도 및 양, 적절한 치료적 접근, 상담효과의 측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객관적 지능검사는 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예측하는데 있어 그 개인의 지적 수준, 지적 관심, 지적 포부, 주의, 기억, 판단, 개념수준, 계획, 분석, 조직, 통합기능 등 인지기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용 지능검사인 웩슬러 지능검사는 지적, 인지적 기능 수준뿐만 아니라 지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서, 동기,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요인, 그리고 특수한 장애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집단용 지능검사가 사용되고 있지만 한 개인의 인지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지능검사를 사용해야 한다. 웩슬러(성인용, 아동용)지능검사가 있다. 셋째, 투사적 검사는 구조화 되지 않은 자극자료를 사용해서 내담자가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는 대신 보다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적인 성격구조와 근원적인 심리역동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검사로 로샤, 주제통각검사가 있다. 특히 로샤는 개인 성격의 여러 차원들 인지, 정서, 자기상, 대인관계, 스트레스 통제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심리측정적 기초가 확고한 검사이다. 따라서 내담자는 이러한 정신기능의 과정과 성격특성을 알게 되면 자신의 갈등뿐 아니라 대인관계 양상이나 자신의 행동방식을 더욱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심리검사는 인간의 다양한 특성들을 양적, 질적으로 파악하여 한 인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린이날, 엘림동산 패밀리축제에 다녀와서

김혜숙 자매(청장년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밖에서 즐길 수 있었던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날씨도 화창하고 기온도 적당했습니다. 교회에서 고기와 소시지, 2차로 맛있는 떡볶이까지 준비해주시고 각 사랑방별로 밥, 김치, 야채, 과일, 간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끼리 놀러갔다면 준비할 것이 아주 많았을 텐데 나누어 준비하니 준비물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방별로 둘러앉아 오랜만에 야외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럿이 준비하니 먹을 것도 더욱 풍성했습니다. 고기와 소시지 아스파라거스를 구워주셔서 맛있게 먹고 디저트로 와플까지 만들어주셔서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주일예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반복하며 조심스럽게 드렸는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아지니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와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주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패밀리축제를 위하여

어린이날 레크리에이션

섬겨주시고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식사와 교제 이후에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게임에 참여하여 뛰고 웃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을 준비해 오셔서 만들어서 나누어주신 분도 있었고 예쁜 사진을 남겨 주신 손길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짧은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린 것도 의미 깊었습니다. 가족끼리 준비한 것보다 훨씬 풍성한 어린이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도 어른들도 기쁘게 보낸 즐거운 패밀리축제였습니다. 저희 사랑방에 누가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날은 교회행사에 오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여자의 추억 만들기

김은희 집사
(3교구)

지난해 가을… 봄엔 엄마와 막내 이모, 그리고 세 딸이 함께 꼭 제주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최근 엄마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이 되어 여행 대신 어버이날 기념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병원 외에 바깥을 나갈 수 없는 엄마를 위해 수목원 나들이를 하고 집이 아닌 근사한 호텔에 가서 1박을 하며 이벤트도 하고 딸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로~!^^

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수목원은 예쁜 꽃과 나무들, 작은 호수까지 봄을 만끽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

휠체어에 탄 엄마는 오랜만에 딸들과 자연을 느끼며 함께하는 것이 좋으셨던지 연신 감사기도를 하시며 "이쁘다. 좋다. 고맙다."를 연발하신다. 그렇게 두 시간 정도를 둘러보고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차 안에서 문득 엄마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니 찬송가 가사를 다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엄마~, 우리 찬송 부를까?" 난 평소 엄마가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CCM을 선창하기 시작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엄마, 이모, 언니까지 모두 함께 부르며 좁은 차 안은 어느 새 찬양집회장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찬양을 마치면 "아멘!"과 함께 박수를 치고 모두 하하호호. 이제 큰소리를 내어 웃을 힘은 없지만 엄마의 표정만큼은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늘 검소하게 살아오시느라 좋은 호텔에서 한 번 묵어보지 못하셨을 엄마… 엄마를 위해 언니와 나는 호텔방을 Thank you 레터풍선과 하트 뽕뽕 장식으로 이쁘게 꾸몄다. 머리엔 큰 케이크 모자를 쓰고 선물과 맛있는 케이크를 들고 팡파르 음악에 맞춰 등장하며 우스꽝스러운 춤사위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쉰이 넘은 둘째딸과 막내딸의 재롱이 즐거우셨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시다^^ 엄마와 이모, 언니와 나는 그렇게 한참을 웃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큰언니가 사정이 생겨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더 늦기 전에 엄마, 그리고 막내 이모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어서 그리고 모두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깜찍한 일탈이라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가족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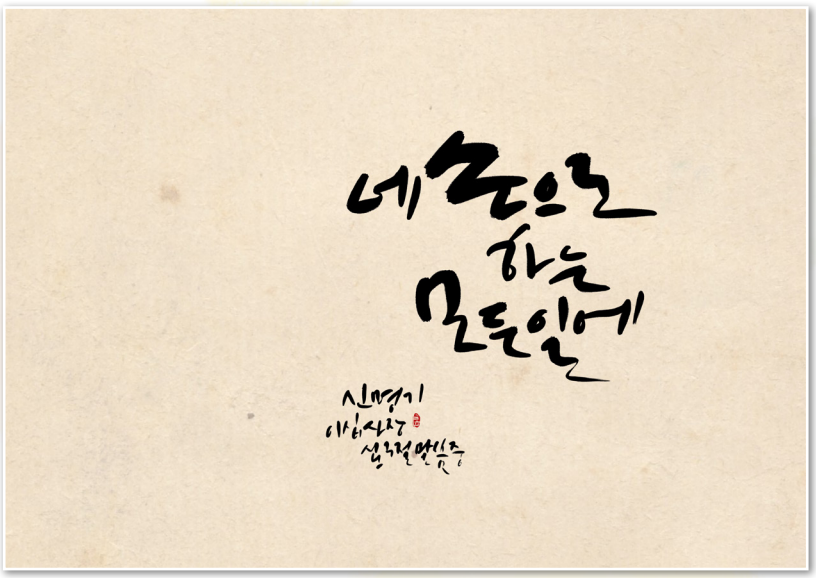
"엄마~, 반짝반짝 빛났을 당신의 청춘에 우리라는 꽃을 피워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김영택 은퇴안수집사
(1교구)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느끼지만 이번에도 긴장과 불안한 마음이 든다. 혹시 예상치 못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 평상시 운동, 영양섭취, 절제된 식사 등 좀 더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드디어 별로 내키지 않는 위내시경 검사가 시작되었다. 이럴 때 나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말씀을 묵상한다. 이어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이런 좋은 시설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위는 내 몸이지만 낯선 광경이었다. 이 위가 그 많은 음식을 소화한다고 생각하니 고맙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 더 잘 보호해 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결과는 다행히 이상이 없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내 아이패드에 내시경으로 찍은 47장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 와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경이로웠다. 위를 잘 보살피고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든다. 한편으로는 내 영혼과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영혼내시경(?)으로 들여다보았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이웃 등을 보았다.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친절하지 않고… 마음이 무거웠다. 이럴 때 의사는 어떤 처방을 내릴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즉시 자동적으로 떠올랐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영혼, 마음의 병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의학적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심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코로나로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삶을 다짐해 본다.



루야캘리 이욱 형제(신문위원)

뉴젠에서 온 소식

오늘은 청소년들이 예배할 때 가장 빛나는 단체인 중.고등부 찬양팀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찬양팀 전도사님과, 학생 1명 이렇게 해서 찬양팀에 관하여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4가지 답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우주 학생위원)

고등부 찬양팀

자신이 맡고 있는 찬양팀 포지션과 그 포지션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서영준 전도사(고등부)_찬양인도자. 음율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목소리로 경배한다. 찬양 앞뒤의 멘트를 통해 찬양 가사를 묵상하게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광돌리게 한다. 기도 인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드러낸다.

최주만 전도사(중등부)_중등부 찬양인도를 맡고 있습니다. 찬양팀이 먼저 예배자로 서고 중등부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장윤진(고등부)_포지션은 싱어고 포지션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항상 기억한다.

구현우(중등부)_저는 찬양팀에서 싱어를 맡고 있고 이 역할을 통해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찬양팀에서 어떤 방법으로 팀원들과 협력하나요?

서영준 전도사(고등부)_전체적으로 팀을 리드하며 공동체성을 느끼도록 교제 및 레크리에이션 시간 등을 가진다. 팀원들의 영성을 위해 교육 및 나눔 시간을 가진다. 1대1로 대화하며 삶을 나누고 격려한다.

최주만 전도사(중등부)_아직 팀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나누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진(고등부)_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 의견을 듣고 따르며 협력 한다.

구현우(중등부)_저는 찬양팀 멤버들과 연습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최대한 소통함으로써 친목을 다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매주를 하나님 기쁘신 찬양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을 하면서 비전이 있다면?

서영준 전도사(고등부)_학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찬양팀이 거룩한 통로가 되어 회중들이 휘발되는 찬양이 아닌 삶에까지 새겨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최주만 전도사(중등부)_우리의 찬양이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구현우(중등부)_비록 잘하지는 못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비전으로 삼는다.

구현우(중등부)_우리 중등부가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비전입니다.

좋아하는 찬양과 그 이유는?

서영준 전도사(고등부)_<어노인팅 - 예수님만을> 주님만을 평생 사랑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자 고백이어서.

최주만 전도사(중등부)_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은 없는데, <예수 피를 힘입어>를 자주 부릅니다.

장윤진(고등부)_좋아하는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 이유는 들으면 들을 수록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지혜를 얻는다.

구현우(중등부)_<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표현했고 이 찬양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팀원들과 하나님께 하고싶은 말

서영준 전도사(고등부)_할고찬 사랑합니다~!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깊고 넓게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0^

최주만 전도사(중등부)_하나님께서 중등부 찬양팀으로 각자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중등부 찬양팀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찬양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윤진(고등부)_하고 싶은 말은 비록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현우(중등부)_비록 부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있어 죄도 많이 짓지만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박혜연 자매(6교구), 뉴욕 카네기홀 와일 리사이틀 홀에서 열린 갈라콘서트 출연

박혜연 자매(6교구)가 지난 5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카네기홀 와일리 사이틀홀에서 열린 '컬러풀 코리아' 갈라 콘서트에 출연했다. 공연기획사 CMS비엔나가 주관하는 이번 갈라 콘서트는 제임스 정과 이국표 지휘자가 이끄는 공연으로 정상급의 한국계 연주자와 성악가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번 카네기홀 공연을 주관한 유소영 대표는 "박혜연씨가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순수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장애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노래에 대한 열정이 강한 것을 보면 비장애인들이 오히려 본받아야 한다" 고 했다.

한편 박혜연 자매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소속 소프라노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2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해외 성악콩쿨 <Music in the world ROMA>에서 비장애인들과 겨루어 성악 부문 3위에 입상했다.

전강희 집사(5교구), 7월 2일 바흐 칸타타 아리아 프로젝트 II

코로나 시기에 교회음악과 고전음악 등을 기획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다 더 잘 기억하고자 카라바조의 그림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를 포스터에 사용했으며 우리의 곤고함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고자 부제목을 로마서 7장의 "나는 곤고한 자로다"로 했다. 연주의 특이점과 개성을 소개하자면 바흐가 당시 사용했던 독일식 Mieke 모델의 하프시코드(첼발로)가 사용될 예정이며 교회음악으로 저명한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을 무대에 올리게 되어 기쁘다. 7월 2일 저녁 7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열리는 바흐 칸타타 아리아 공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원경희 피택권사(5교구), '유명 공인중개사 사무소' 오픈

5교구 원경희 피택권사가 5월 12일에 서현역 근처에 위치한 '유명공인중개사사무소'를 오픈하고 사랑방원들과 함께 개업예배를 드렸다. 기존에 운영하던 중개사무소에서 확장 이전하게 되었는데, 새롭게 오픈한 이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길 기도한다.

유명공인중개사 사무소 (031-708-88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31번길 42 서현파크플라자 134호

6월호, 성도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할렐루야신문사에서는 신문 콘텐츠 확장 및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작성한 설문은 이름, 교구 및 연락처를 적은 뒤 점선을 따라 잘라서 22일까지 신문사(221호)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우측 큐알 코드를 통해 온라인 설문 참여도 가능합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름 **교구** **연락처**

① 이번 호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②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이나 할렐루야신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③ 이웃사랑 실천 사례나 환경사랑 캠페인 후기를 나누어 주세요.

100번째 가정

예수,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박수근 안수집사 · 조정아 권사(2교구)

얼마 전 대치동의 유명 수학강사가 대출 없이 현금으로 몇 백억의 집을 구매했다는 인터넷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 강사의 강의를 수강했었죠. 작은아이가 농담으로 "언니도 1타 강사나 해라" 했고 큰아이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 매일 말씀 묵상 노트를 쓰면서 내가 깨닫는 게 많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직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란 두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기도했었는데 큰아이의 이런 고백에 감사한 마음이 들며,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으나 성인이 된 후로는 각자의 학업과 스케줄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 부부는 출근 후 시간 여유가 있어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저희에게는 참으로 귀합니다. 교회와 자녀와 사랑방과 믿지 않는 친척들과 치료받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계시기에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늘 지키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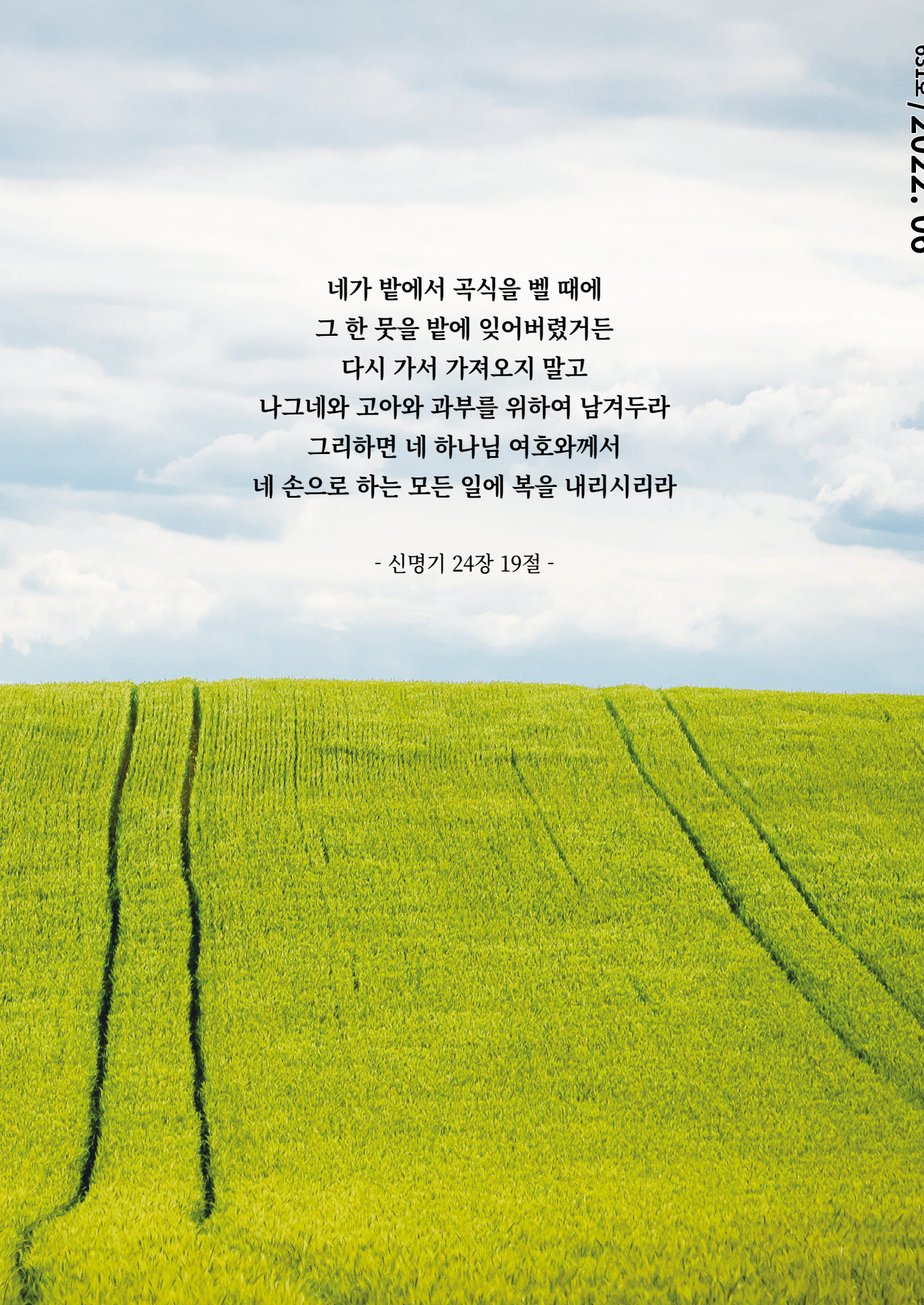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며 늘 감사와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편집자주 **예배하는 우리집, 연재를 마치며** 마준호 집사(신문위원)

'예배하는 우리집'은 교회의 가정예배 중심 사역에 발맞춰 2013년 10월호에 첫 가정을 소개한 이후 10년이 된 장수코너입니다. 그동안 총 99가정(2가정 중복게재)의 진솔한 가정예배 모습을 간증문으로 소개해 왔고, 이번 100번째 가정의 간증을 끝으로 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회 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각 가정의 원고를 게재하기까지 반복되는 원고청탁과 고사(固辭), 수락 등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가정예배가 이렇게 어렵고 그렇게 귀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도전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예배의 다양한 모습들이 주님의 은혜와 향기를 내뿜으며 새롭고 발전된 콘텐츠로 성도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가족입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등록하신 분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 신명기 24장 19절 -